# 겸손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다

(사도행전 18:18-28)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직후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재판 이후에는 후임 회당장 소스데네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온 힘을 다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 부부는 식사 준비와 예배 준비를 담당하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바울은 형제들과 작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뒤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떠날 때는 한층 단단하고 깊어진 신앙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이동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이 터전을 옮긴 이유는 단순한 인간적인 정이나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는 이전의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과거의 실패를 넘어 예수를 만난 이후, 사명이 이 부부를 움직이는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학군이나 직장, 혹은 부동산 투자 가치를 따라 이사하지만, 신앙인은 사명을 따라 삶의 자리를 이동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도 오직 말씀을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주로 먼저 등장합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아내가 예수를 만나 최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사랑과 헌신이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도운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보며 동일한 사명의 방향을 함께 바라볼 때 가장 깊은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머물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둔 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약 3년 동안 5,000km를 누빈 2차 전도 여행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마친 바울은 곧이어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방문하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성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순간은 예고 없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전도여행의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여행은 각기 명확한 특징을 지닙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복음의 지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장된 지역적 특징을 가집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목적은 기존 성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양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지지하는 참된 교회는 선교와 양육이라는 두 가지 기둥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처럼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바른 양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선교와 양육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양육을 받은 성도는 소외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양육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학문과 철학, 수사학이 발달했던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세계적 문명의 영향으로 웅변술과 수사학에 능하고 성경에 통달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완전한 복음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며 바울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최고의 학식과 성경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비천해 보일 수 있는 이들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겸손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적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지식이 쌓일수록 겸손을 잃기 쉬우며 비판이 많아지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명을 따라 겸손하게 성도를 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뛰어난 지식을 가졌음에도 겸손하게 배운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와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훌륭하게 섬기면서도 의도적으로 바울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덜 가졌다고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회나 가정을 지킬 수 없으며 인생은 무너집니다. 겸손은 어디서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룩한 길을 열어줍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